

새마을 기술봉사 활동에 있어서 대학교수의 역할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임문순 교수

1. 서 언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며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보여 주었고 조국근대화를 향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의 고도성장은 지역간의 소득 격차 개인간의 격차를 나타내었으며 기업체의 불황이 겹쳐 사회발전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균형적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가 '70년대의 개발정책이 아닐 수 없었으며 새마을운동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진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토 전체를 살기 좋고 아름답게 가꾸어 잘사는 가정 번영하는 사회·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에서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74년부터 도시의 직장파 지역 단위로 전개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역사 창조의 기록이 아로 새겨져 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구조가 바뀌어졌으며 번영을 위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가고 있다. 경지가 있는 곳에는 농토가 있고 농업용수시설이 있는등 경지정리가 잘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물질적변화 이외에도 의식구조의 변화는 더욱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새로운 의

욕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의 창조적 노력에 의거하여 발전시킨 힘의 개발운동이요 구국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중간 결산을 해보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꼭 할일을 안하고 있는 곳은 무엇인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적극 참여해야 할 사람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를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민이 조국근대화의 실천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식인은 가치관과 사회발전의 선도자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마을사업에의 지식인의 참여는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식인중에서도 지성인을 양성하는 대학교수들의 태도와 역할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추진에 기여하는바 크다. 대학교수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발전의 기술과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애국애족의 불타는 역군을 양성하여 사회발전의 좌표를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창안자이기도 하다.

2. 새마을운동에의 대학교수 참여의 필요성

새마을운동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강제적인 역할이나 행정적 지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확립되어야 하고 실천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동 단결하여

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유능한 지도자의 양성 훈련이 있어야 하며 주민협동을 위한 자각요인과 새로운 기술과 방법이 뒤따를때 새마을운동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여러 연수원의 강사들은 지도자 주민교육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를 해주어야 하며 행정공무원들은 출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대한 교육문제를 일부 강사나 지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 지식인 특히 전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중요시 된다.

교수는 각 전공 분야별로 전문가인 동시에 최고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성인이다. 고도의 발전이 요청되고 조그만 지혜라도 총동원해야 할 시점에서 대학에서의 강의만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한다면 사회발전면에서 볼 때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지식은 널리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창의적 Idea는 새마을운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교수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운동은 이론이 없어 학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학문이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새마을운동이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새마을운동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 고유의 이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다. 우리 교수들은 하루 속히 이 운동의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하여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둘째 새마을운동은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교수들의 새마을운동의 참여는 마치 현정부에 잘 보일려고 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거나 그러한 눈초리로 보는 경향이 동료교수들간에 있는 듯 하다.

진정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정권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볼진대 어찌 교수들의 참여가 요청되지 않겠는가? 새마을운동이 부강의 길로 안내하는 운반차라고 한다면 운반차를 정비하고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교수들은 정비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비사의 역할이란 고장이 났을때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함과 동시에 문제점이 있을때 즉시 시정하고 작업을 담당해야 한다.

세계 새마을운동이 전공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새마을운동은 어느 특정 연구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종합되어 이루어지는 종합과학의 성격은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음악가는 노래를 통해서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과학자들은 생활의 과학화를 국민생활 속에 심어야 한다. 전공분야별로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고 발전시킬때 비로소 새마을운동은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철학이 될 것이다.

셋째 교수는 연구실에서 연구나 하면서 이론이나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교수가 할 일이 못된다고 한다. 연구는 이론과 실천을 병행할 때 최대의 성과를 가져 온다고 본다. 예컨대 목욕탕시설이 없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겨울철을 보내는 농민들의 생활습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실 탁상 위에서 쓴 사회개발의 이론이 어찌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교수는 이론과 실천을 병행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화하고 영속화의 기반을 이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외국의 새로운 학문을 도입하되 우리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주체성을 상실한 연구와 교육은 다른나라 국민을 위한 교육이요, 우리 사회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이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체성 있는 이론과 실천을 토대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의식구조 속에는 대학교수를 가장 신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존경하며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

3. 대학교수의 역할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을 일시적인 정책이거나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동안의 실적에 비추어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수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교수들의 참여가 급격히 증대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연구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발표회,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성공사례가 많아져가고 있다.

오늘날 대학교수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지도자요 정책방향의 제안자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말로만의 애국이 아닌 행동적 애국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부분적으로 교수들의 역할을 언급하였거니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체계화가 시급하다. 물론 새마을운동이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 체계화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학문이 초기부터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선 하나의 일차적인 이론적체계가 나오고 계속해 보강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새마을 교육교재를 보면 이론의 통일성을 찾아 볼 수 없고 같은 문제를 강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수강생들은 혼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적체계화는 여러 교수들의 끊임없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협동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한가지의 사례가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 마을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러한 성공사례를 타부락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을에 따라 구조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사례속에서 보편 타당성 있는 일반원칙을 발견하여 이론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거나 어떤 특정 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즉 이러한 사고방식은 새마을운동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면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원리와 이론을 정립하여 그릇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를 통한 새로운 방향 모색 보다 빨리 조국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정책방향을 실무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학문을 하는 대학교수들이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새마을운동의 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계 주민교육자로서의 역할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추진은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도자 및 주민에게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마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중앙에 편중된 교육으로서 중앙교육은 유능한 교수에 의해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벽촌 어촌일수록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실상 지식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중앙 편중의 교육은 지방중심의 교육으로 제도상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일선지도자와 주민들에게 더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대학교수들은 강의 실에서의 대학강의만이 아니라 연구실에서의 연구만이 아니라 농어면교육에 직접 나서야 하고 농어촌의 대자원을 연구실로 하여 실천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얻어진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널리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4. 교수활동의 경험과 과제

필자는 지금까지 10여년동안 농촌마을을 다니면서 새마을 가치관의 확립과 농사기술개발을 하여 왔다. 그리고 1970년 이후에는 뜻을 같이 하는 교수들과 손을 맞잡고 순회농민교수단을 만들어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본교수단은 전공이 서로 다른 15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기술에서부터 건강관리 농촌행정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도를 할 수 있었다.

농촌현지 교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용돈으로 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빠스편이 없는 산촌이나 어촌을 다니기에는 하루에 몇마을 다니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씩 많은 농촌을 돌아다닐 수 없는 이춰움도 많았다. 그러나 자가용차를 타고 다니며 주민교육을 하는것 보다 도보로 다니면서 농어민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잠자며 생활속에서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느꼈다.

이는 농민들 마음속에 우정을 주고 동질감을 크게 넣어 준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남자를 고통과 피로움이 따르지만 평소 지식의 빈곤, 도시에서의 소외감에 잠긴 농민들의 환영에 접하면 모든 것을 잊게 되고 보람과 의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지도의 성과를 목격할 때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것이 교육자의 보람이요 농촌지도를 가치있게 하는 유인요소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러한 경험이 없는 지식인들은 흙을 통한 교육의 보람을 실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된다.

참고로 필자가 추진해온 농촌지도의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① 주민 지도자교육

주민의식구조와 환경개선 그리고 소득증대에 필요한 기술과 방법은 농장 사랑방 마을회관 학교실을 이용하여 주민 지도자에게 교육한다.

② 농촌중고등학생교육

중·고학생이라면 부모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차 농촌에 머무를 미래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자라는 학생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는 성인·지도자들에게만 치중하고 있어 학생시절에는 하지 않던 봉사활동을 성인이 되어 갑자기 지도활동을 하게 되니 어색하고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교육은 성인교육에 못지 않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③ 지도층인사교육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등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의 일반이론과 농촌지도의 방법과 기술을 교육한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그 필요성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따라서 새마을 사업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지도층인사들이 솔선수범할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도층인사들의 교육이 중요시 된다.

④ 통신교육

현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여려가지 제약으로 전마을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서신교육, TV, Radio, 잡지를 통한 대중교육에도 치중하고 있다.

특히 서신제도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고 문의를 할 때는 처방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생활향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⑤ 농촌 미진학 청소년교육

발전의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가정사정으로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농촌에는 아직도 많은 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배움을 갈구하고 있으며 미진학생이라는 열등감으로 생의 의욕조차 상실한채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잘못하면 나쁜길로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이 시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마을에 가서는 청소년들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민교육과는 별도로 교육하고 있다.

⑥ 독서운동의 전개

교육은 영속성이 어렵고 있어 버티게 됨으로

본교수단이 여러 교수들이 쓴 저서나 논문 그리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도서를 모아 주민들에게 보내주고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의 마을에 마을문고를 찾아 볼 수 있으나 대부분 낡은 책이거나 불만 한 서적이 많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마을에 책이 몇권이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읽을 책이 있느냐가 문제이며 어떻게 책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느냐가 더욱 중요시 된다.

그러므로 도서의 양에다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에 치중하여 가치 있는 책을 가능한 전부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다.

⑦ 지역사회개발 중흥집단

참된 주민지도는 주민의 의식구조와 생활태도의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교수단은 지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개발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산촌, 어촌, 평야 근교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진마을로부터 낙후마을에 이르기까지 표본부락을 선정하여 개발요인을 분석하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5. 결 언

국가의 고도발전이 요청되는 현시점에서 전국의 돌이나 풀한푼이라도 국가발전에 활용되어야 하고 전국민의 창조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의 두뇌집단인 교수단은 사회발전의 개척자요 발전적정책의 안내자로서 새역사 건설의 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침체와 낙후의 사회구조를 발전과 번영의 궤도위에 올려놓고 자랑스런 조국 존경받는 민족이 되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지도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총화로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세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널리 주민들에게 주입시켜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로서 마을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은 일제시대의 관의 일반적 횡포에 지친 나머지 해방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는 있으나 아직도 가시지 않는 타성 때문에 공무원의 지도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농민들의 의식구조 가운데 교수들에 대하여는 순수하게 보고 있으며 높은 존경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교수를 높이 신뢰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하려 들어 모든 일을 같이 상의하여 오고 지도를 받기를 크게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여 우리 교수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히 시정책을 촉구하여야 하며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교수들이 적극 참여할때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배가될 것이다.

이것은 교수들에게만 극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전지식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는 농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한채 흙을 지키는 그들에게 정신적양식과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랑과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은 나의 고향인 동시에 온 국민의 고향이다. 그러기에 농촌발전은 남의 일이라고 저버릴 수는 없다. 부유층인사, 공무원 교사들이 숭선하여 지도 지원할 때 새마을운동은 영속화될 것이며 민족중흥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生活 속에 科學심어 祖國 繁榮 이룩하자